



남원 드림스타트, 전문 청소업체 '치움' 과 협약

남원시 드림스타트는 13일, 관내 취약계층 아동 가구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 청소업체 '치움' 과 2025 드림하우스 내 방의 기적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가정을 대상으로 맞춤형 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치움 관계자는 "아이들이 정돈된 공간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밝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아이들의 성장은 물론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시 감미옥 여성가족과장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꿈을 키우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긍정의 변화를 만들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부권역 센터장 회의

전국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협의회 서부권역(권역장 장미숙, 인천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13일 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2025년 서부권역 하반기 센터장 회의 및 신규직원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함께의 가치를 위해, 나답게 우리답게'를 주제로 서부권역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신규직원의 전문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 서부권역 소속 28개 시군구센터장과 3년 미만 신규 직원 및 추천 직원 등 총 60명이 참여했다.

모아맘 보육재단 김광자 대표의 특강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으로의 만남과 연결'에서는 직원으로서의 비전과 실무 역량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만경읍 주민자치위원회 등, 고추장 나눔사업 추진

김제시 만경읍 행정복지센터는 13일, 주민자치위원회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주민위원회가 공동으로 '함께하는 삶, 나누는 정 고추장 나눔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두 위원회가 기획부터 제조, 포장, 나눔까지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협력 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번 사업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 고추장을 공동으로 제조한 뒤, 주민자치위원회는 판매를 통한 수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주민위원회는 독거노인, 저소득 가구 등 취약계층 350세대에게 나눔 활동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제=곽노태기자

‘아동의 꿈과 희망이 빛나는 익산 만들자’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유공자 표창 · 아동 목소리 전달 · 풍등 퍼포먼스 등

익산시는 다가오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맞아 지역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

시는 13일 전북익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부송도서관 시청각실에서 '2025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아동의 꿈과 희망이 빛나는 익산'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유공자 표창식과 아동 의견 전달, 인터뷰 영상 상영,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행사에는 최재용 부시장과 최재현 익산시의회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시의원, 익산경찰서장,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기여한 9명에게 익산 시장상, 시의원상, 경찰서장 감사장, 교육장상 등 유공 표창이 수여됐다.

이어 익산시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원 2명이 '아동의 안전한 생활환경과 건강권을 지켜 달라'는 아동의 목소리를 익산시와 시의회에 전달했다.

아울러 영상 상영을 통해 아이들이 꿈꾸는 미래와 그 꿈을 지켜주기 위한 어른들의 다짐을 전하고, 풍등 퍼포먼스로 아이들의 희망이 더 밝게 빛나길 기원했다.

매년 11월 19일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정된 '아동



학대 예방의 날'로, 이날부터 일주일간은 아동학대 예방 주간으로 운영된다.

시는 지난 11일 진행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에 이어, 오는 19~25일 유관기관과 협력해 긍정 양육 문화 확산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재용 부시장은 "아동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힘써 주시는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아이들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23년째 이어진 기부… 김형년 원장, 전북대에 올해도 1000만원 쾌척

2003년부터 시작… 누적 기부액 4억3000만원 달성

인천중앙동물병원 김형년 원장(전북대 수의대 67학번)이 전북대학교에 발전기금 1천만 원을 기부했다.

지난 7일 대학본부 4층 총장실에서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 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13일 전북대에 따르면 김 원장의 기부는 지난 2003년, 수의대 시절의 은혜를 후배들에게 돌려주겠다는 다짐에서 시작됐다. 그로부터 23년째 해마다 빠짐없이 이어지고 있어 후배들에게 선한 영향력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2천만 원으로 시작된 발전기금은 매년 그의 형편에 맞게 꾸준히 이어졌고, 올해까지의 누적 기부액은 총 4억 3천만 원에 달한다. 김 원장은 지난해에도 '차량스러운 동물대상' 수상 상금 200만 원을 포함해 총 1,200만 원을 기부하며 상급마저 모교에 환원한 바 있다.

그의 뜻을 기리고자 전북대는 기부금을 '김형년 장학금'으로 명명해 매년 수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



급하고 있다. 또, 수의대 강의실 한 곳은 '김형년홀'로 이름 붙여 그의 헌신을 기리고 있다.

김형년 원장은 "해마다 기부를 이어오며 느끼는 보람이 크다"며 "후배들이 학업에 전념하며 더 큰 꿈을 키워가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양오봉 총장은 "20년이 넘는 김형년 원장님의 기부는 모교와 후배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다"며 "기부금은 후배들의 학업 지원과 교육 환경 개선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김 원장은 전주 해성고와 전북대 수의학과를 졸업했다. 1973년 동신제약에서 수의사로 첫발을 내디딘 뒤, 1983년부터 인천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장은성기자



구천동농협, 조합원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교육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은 지난 12일 구천동농협 본점 2층 대회의실에서 신규조합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 강사로 나선 김중부 신용상무는 최근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표 수법 및 피해 사례를 전파하고 보이스피싱 예방법 및 대처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문자스미싱, 가짜 웹사이트 등 피싱범죄가 점점 고도화 되는 상황에 따라서 피해 수법과 사례 등을 설명하고 대처방법에 대해 안내했으며, 다양한 연령층에서도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방교육 영상을 시청하고 고객창구에 홍보 리플렛을 비치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신풍동 지사협, 장수사진 촬영 및 국수 나눔 행사

김제시 신풍동 행정복지센터는 13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최호길)가 비사별경로당에서 어르신 120여 명을 모시고 '제5회 장수사진 촬영 및 국수 나눔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5회 행사는 지난 4회에 이어 마지막으로 진행된 뜻깊은 자리로, 어르신들이 인생의 아름다운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고 따뜻한 식사와 한방진료를 함께하며 건강과 정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당신멋져봉사대' (회장 조현경)의 미용봉사와 '효도리사업사업단' (단장 한진국)의 한방진료(뜸 치료)가 함께 진행되어 어르신들의 건강과 활력을 더했다. 단정하게 단정한 어르신들은 카메라 앞에서 밝은 미소로 행복한 순간을 기록했으며, 완성된 장수사진은 액자로 제작돼 추후 각 가정에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촬영을 마친 후에는 협의체 위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따뜻한 국수가 점심으로 제공되어, 어르신들은 오랜만에 함께 모여 웃음과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김제=곽노태기자

요촌동 지사협, 복지우수사례 벤치마킹 견학

김제시 요촌동 행정복지센터는 13일 지사협 위원 및 직원 22명이 전남 영광군 묘량면 여민동락공동체로 선진지견학을 다녀왔다고 밝혔다.

여민동락공동체는 귀농·귀촌 청년과 지역 주민이 함께 운영하는 비영리 공동체로, 마을 어르신 복지센터, 이동점빵, 마을기업 등 복지·돌봄·일자리 사업을 통합적으로 실천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견학에서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직접 살펴보고, 우리 지역에 적용 가능한 특화사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견학은 지사협 위원 22명이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여민동락공동체의 지역복지 우수사례를 학습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참석자들은 영광군 백수도로, 노을전시장 등 지역 명소를 둘러보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김만중 민간위원장은 "견학을 통해 협의체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특화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